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미국 국채의 역사적인 핼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 ◇ (초점)-발행 중단·고시증권사 위축에 요지부동 CD..금투협 "유통금리 반영토록"
 - ◇ (초점)-치솟는 FX 스왑 상승세..어디까지 오르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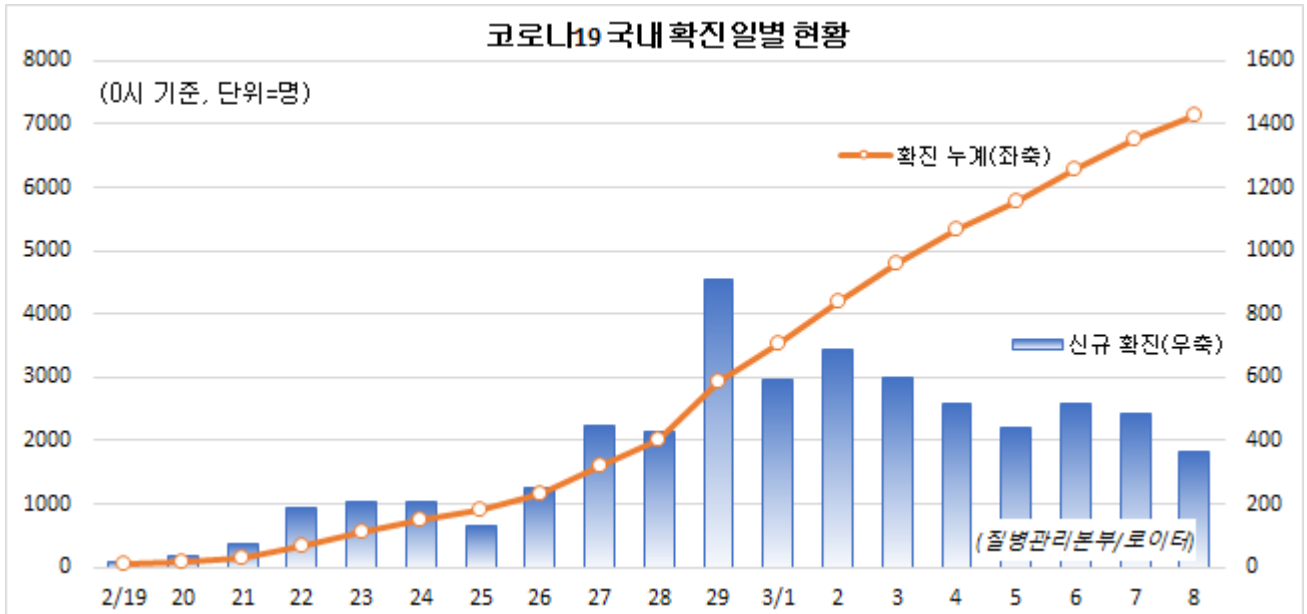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설에서 한 남성이 차에 탄 채 의료진의 검사에 응하고 있다. (로이터/김경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6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92.3	1.8%	-3.0%	-3.5%	유로	1.1285	2.4%	0.7%	-2.3%
100엔 대비	1,128.6	-1.6%	-5.9%	-4.4%	엔	105.30	2.6%	3.1%	0.9%
유로 대비	1,341.5	-1.4%	-3.6%	-1.3%	위안	6.9368	1.0%	0.4%	-1.3%
위안 대비	171.42	0.1%	-3.3%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5,864.78	1.8%	-9.4%	22.3%
코스피	2,040.22	2.7%	-7.2%	7.7%	나스닥	8,575.62	0.1%	-4.4%	35.2%
코스닥	642.72	5.2%	-4.0%	-0.9%	S&P500	2,972.37	0.6%	-8.0%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13.98	1.0%	-7.0%	15.8%
국고채 3Y	1.078%	-2.6bp	-28.2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82%	0.2bp	-29.8bp	-40.4bp	미국채 2Y	0.510%	-42.1bp	-105.1bp	-93.7bp
국고채10Y	1.370%	3.7bp	-31.3bp	-26.5bp	미국채 10Y	0.773%	-39.0bp	-113.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1.28	-7.8%	-32.4%	34.5%	한국 5Y	35.1bp	1.7bp	14.0bp	-17.0bp
금(현물)	1,673.85	5.6%	10.3%	18.3%	일본 5Y	26.0bp	3.8bp	8.3bp	-4.0bp
TR상품지수	2,333.49	-1.9%	-6.1%	4.8%	중국 5Y	52.8bp	5.4bp	22.1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심각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국민

0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0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0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0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0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0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0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0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0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0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0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0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0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0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9일(월)>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3:00)

<10일(화)>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09:00)

<11일(수)>

- 통계청, 2월 고용동향(08:00)
- 한은, 2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12일(목)>

- 한은,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12:00)

<13일(금)>

- 한은, 2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3월 최근경제동향(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9일(월)>

- 일본, 2월 은행대출 (8:50)
- 일본, 1월 경상수지 (8:50)
- 일본, 4분기 GDP 수정치(연율) (8:50)
- 유로존, 3월 섉덱스지수 (18:30)
- 미국, 2월 고용추이 (23:00)

<10일(화)>

- 중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0:30)
- 중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0:30)
- 미국, 2월 NFIB 기업낙관지수 (19:00)
- 유로존, 4분기 GDP 수정치 (19:00)
- 중국, 2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10~17일)
- 중국, 2월 위안화 신규대출 (10~17일)
- 중국, 2월 외국인직접투자(FDI) (10~18일)

<11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21:30)

<12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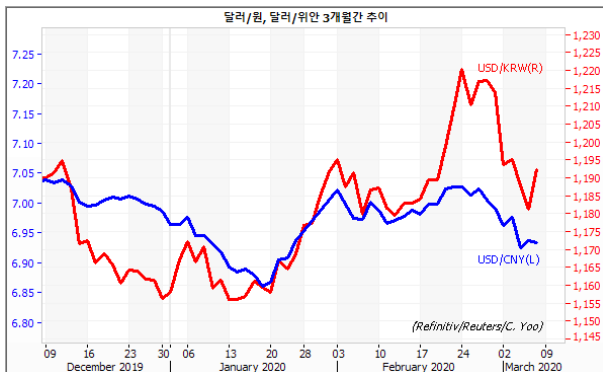
- 미국, 2월 연방예산 (3:00)
- 일본, 2월 기업상품가격지수 (8:50)
- 유로존, 1월 산업생산 (19:0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1:30)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발표(21:45)

<13일(금)>

- 미국, 2월 수출입물가 (21:30)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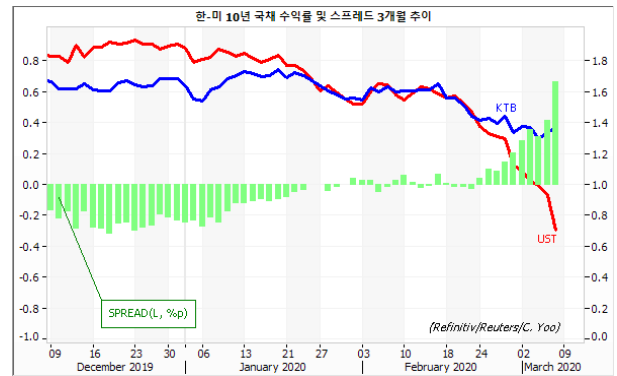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 19 사태 전개에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75-1210 원이다.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의 급격한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 릴레이에 대한 기대가 국제금융시장을 근근이 떠받치고 있지만, 통화 완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가시지 않고 있다.
- 이런 가운데 12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규모 확대를 동시에 기대하지만, 기대치가 높은 만큼 회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차가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다만 원화에 대한 성법은 단순하지 않다.
- 달러 약세 압력이 강해지면서 달러/원 상단이 막히는 흐름이 번번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속에 코로나 19 공포감이 반감되는 기미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 이번 주 위·아래 보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원화지만, 이전처럼 원화 약세 일변도 흐름보다는 달러/원 상·하단 저항이 강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 우려와 함께 변동성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 시장 참가자들의 고민은 국내 코로나 19 확산의 진정 양상과 미국을 포함한 새로운 확산 국면을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느냐다.
- 코로나 19 발원지인 중국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고 한국 역시 엄청난 속도전을 통해 코로나 19 통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는 다시 한번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 국내 채권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선 국내 확진자 감소 흐름에 초점을 맞출지, 글로벌 확산 흐름에 초점을 맞출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등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이 국내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 통계청은 11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5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은행은 오는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은은 13일 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하고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최근경제동향 3월호를 발간한다.
-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10bp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지만 인하 여력에 한계가 있는 ECB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점)-미국 국채의 역사적인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한주간 나타난 미국 국채의 극적인 랠리로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지속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공포로 증시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몰리면서 수익률은 곤두박질쳤다.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2일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뒤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3일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1-1.25%로 50bp를 전격 인하했다. 금융위기 이후 정례회의 외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시장을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BMO 캐피탈마켓츠의 이안 린젠 미국 금리 전략 헤드는 "정례회의 전에 50bp를 인하하고, 회의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연준은 의도적이었던 아니든 2주내 추가 조치라는 틀에 자신들을 가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조정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5%로, 연방기금금리가 0.25-0.50%이던 2016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CME 그룹의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이달 연준 회의에서 25bp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완전히 반영돼 있고,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50bp 인하 가능성도 67%로 보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또 12월까지 연방기금금리가 0-0.25%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31%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P 모간의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 19의 확산이 성장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경제 전망치가 이제 따라잡기에 나섰다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4일 보고서에서 "다음에 넘어질 도미노는 성장을 전망치"라면서 "수익률 상승에 또 하나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MUFG 증권사의 존 허먼 금리 전략가는 연준이 다음 두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0.50-0.75%로 50bp 추가 인하한 다음에 멈춰서 인하의 효과를 평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21년 성장률이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연준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제로로 더 인하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지난 2008년 금리를 0-0.25%로 인하해 2015년 후반까지 유지했었다.

허먼은 투자자들에게 단기금리 및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롱포지션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초점)-발행 중단·고시증권사 위축에 요지부동 CD.. 금투협 "유통금리 반영토록 개선"

서울 (로이터) 임승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시장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하락하는 상황이지만, 3개월 양도성에 금증서(CD) 금리는 1.40%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방침 속에 시중 은행들의 CD 발행이 사실상 멈춘 데다 고시 증권사들이 유통금리를 극히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월부터 금융지표관리법이 시행되면 CD 금리를 고시할 때 유통금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금리 사상 최저치 경신에도 CD 금리 정체.. 은행권 'CD 발행 유인 없어'

금투협은 지난 5일 3개월 CD 금리를 1.40%에 고시했다. 3개월 CD 고시 금리는 지난 2월 이후부터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2월 21일과 3월 4일에만 1bp씩 하락해 6일 오전 현재 1.40%에 고시된 상태다.

같은 기간 동안채 1년물, 국고채 3년물 등 금리는 20bp 가까이 급락했다. CD 3개월 금리와 통상 5~10bp 정도의 스프레드를 보이는 AAA 은행채 3

개월 금리도 1.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CD 금리가 1.40%에 머물러 있는 건 과하다는 게 대다수 시장 참가자의 견해다.

시중은행들의 CD 발행이 사실상 멈춘 게 고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CD 발행이 없으니 고시 증권사들도 굳이 고시 금리를 바꿀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이 CD 발행을 멈춘 데는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CD를 발행할 만큼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올해 1월부터 도입한 신예대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1월 시중 주요 은행의 예대율은 98%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대출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 확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중은행 예금과 적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 유동성을 여유 있게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CD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자금부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전혀 급하지 않게 됐다.

A 은행 자금부장은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유동성도 중요하다"며 "자금 결산은 무조건 남는다고 한은 총재가 사실상 보증한 상황에서 은행이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잘 나가지 않는데 규모가 큰 예금도 가급적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전체 자금 흐름 때문에 자금부가 금리만 보고 CD를 발행할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 은행 이자율 딜러는 "예대율에 갑자기 크게 여유가 생긴 데다 그동안 파생상품 쪽으로 쓸렸던 자금들도 이제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 CD를 발행하면 할수록 순이자마진(NIM)만 깎이게 되기 때문에 발행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고시 증권사 '3개월 금리 판단 어려워'..금투협 "11월까지 제도 개선"

발행 금리만 반영하려는 증권사 CD 고시 담당자들의 보수적인 금리 입력도 고시 금리의 경직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월 이후 유통시장에서 CD가 활발하게 거래됐는데도 고시 금리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일부에선 불만도 터져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모범 기준에 따르면 고시 증권사는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 채권 수익률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시 금리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지적이다.

고시 증권사의 일관적이지 못한 CD 금리 판단 기준도 문제로 부각됐다. 유통금리를 CD 고시 금리에 반영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점별로 유통금리 반영과 관련한 고시 증권사의 결정이 달라지다 보니 '고무줄 기준'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증권사 고시 담당자들의 판단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한은 집행부가 보여 왔던 스탠스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한은 집행부는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고 코로나 19 사태가 빠르게 확산된 이후에도 결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

최근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CD는 대부분 6개월 이상 등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만큼 이를 기준으로 3개월 CD 고시 금리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유통금리를 반영해 CD 고시 금리를 조정할 때마다 시장에 '음모론'이 돈 것도 고시 담당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금투협은 증권사 CD 금리 고시 담당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금융거래지표관리법이 시행되면 CD 고시 금리를 산출할 때 유통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CD 금리 고시 담당자들은 단순히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만기 6개월 이상 CD 금리를 가지고 3개월 CD 고시 금리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듯하다"며 "단순히 유통금리를 보고 CD

고시 금리를 결정하는 데 대해 부담이 큰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 증권사들에 CD 고시 금리 정체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하긴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며 "다만 11월부터 금융거래지표관리법이 시행되면 CD 금리 산출 시 가급적 거래가 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점)-치솟는 FX 스왑 상승세..어디까지 오르나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FX 스왑포인트가 최근 상승세에 가속이 붙으면서 약 4년 만에 역전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레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달러/원 FX 스왑포인트 1년물은 -540 전으로 역전 폭이 2017년 12월 이후 최소로 급격히 축소됐다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깜짝 금리 동결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지난달 28일부터 FX 스왑포인트는 상승 탄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3일(현지시간) 연준의 긴급 50bp 금리 인하에 폭등한 스왑포인트는 추가 상승 흐름 속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한-미 통화정책에 대한 엇갈린 기대

FX 스왑포인트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한-미 금리 차다.

연준의 긴급 50bp 금리 인하 이후에도 3월과 4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폭넓게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연준 정책 기대에 반해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은 살짝 다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통화정책에 있어 코로나 19 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25bp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됐지만, 시장의 기대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이같은 양국 통화정책 기대 차이가 스왑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 은행 스왑 딜러는 "결국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유지되느냐가 관건"이라면서도 "한국 1%대 아래는 아직 어렵다는 전망이 크고, 그렇다면 스왑포인트는 역전 현상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수급 엇보기

이런 가운데 최근 외인들의 재정거래도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 은행의 스왑 딜러는 "연준과 달리 한은은 제로금리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전날 한은 긴급간부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금리 인하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려는 듯했다"면서 "현재 외인들이 재정거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분간 이같은 물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인들의 통화선물(IMM) 롤오버 물량도 스왑포인트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최근 1년물 달러/원 스왑베이스스는 -80bp 수준으로 작년 8월 이후 수준으로 악화돼 주목받고 있다.

스왑베이스스는 외화자금 조달 비용과 원화자금 조달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며, 확대될수록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유로/달러, 달러/엔 스왑베이스스 여건을 보더라도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위험 기피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금리 차를 반영해 FX 스왑포인트는 올라가는데 달러 조달은 좋지 않은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FX 스왑 상단이 막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달러 유동성에 큰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최근 스왑베이스스 확대에 따른 관련 비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위의 A 은행 스왑 딜러는 "통화선물(IMM) 롤 물량도 유입되고 있고, 스왑베이스스 확대에 따른 관련 비드도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스왑포인트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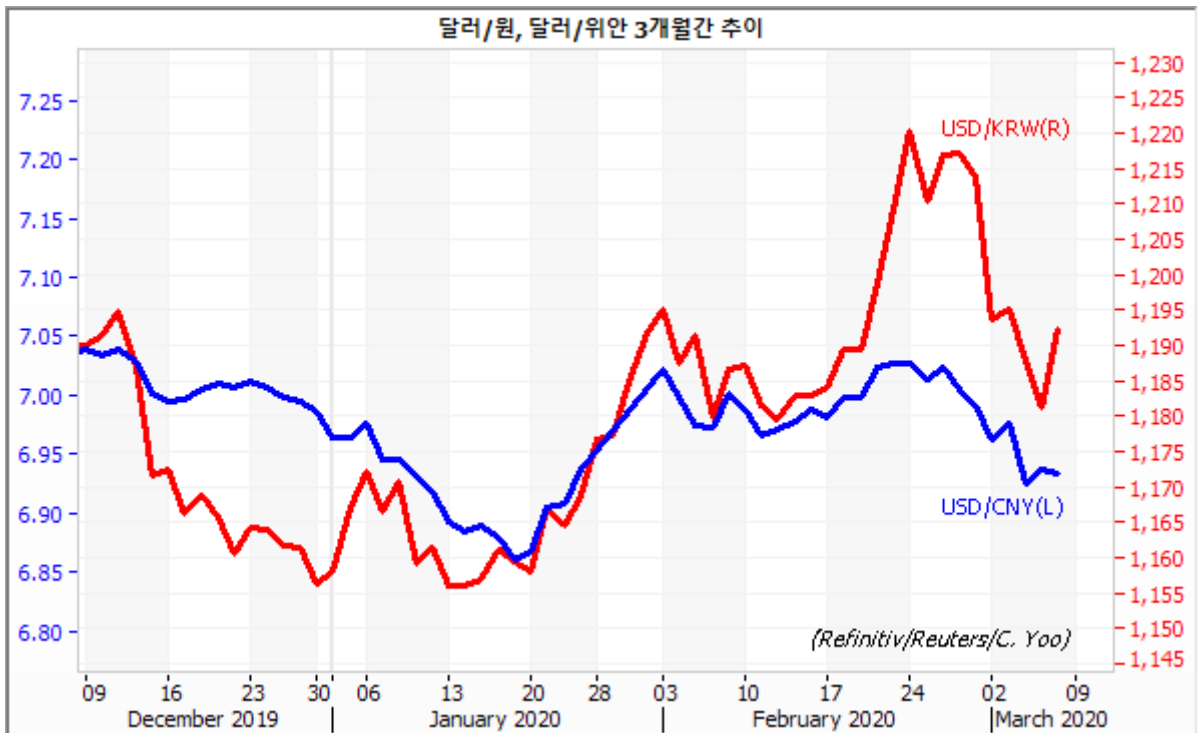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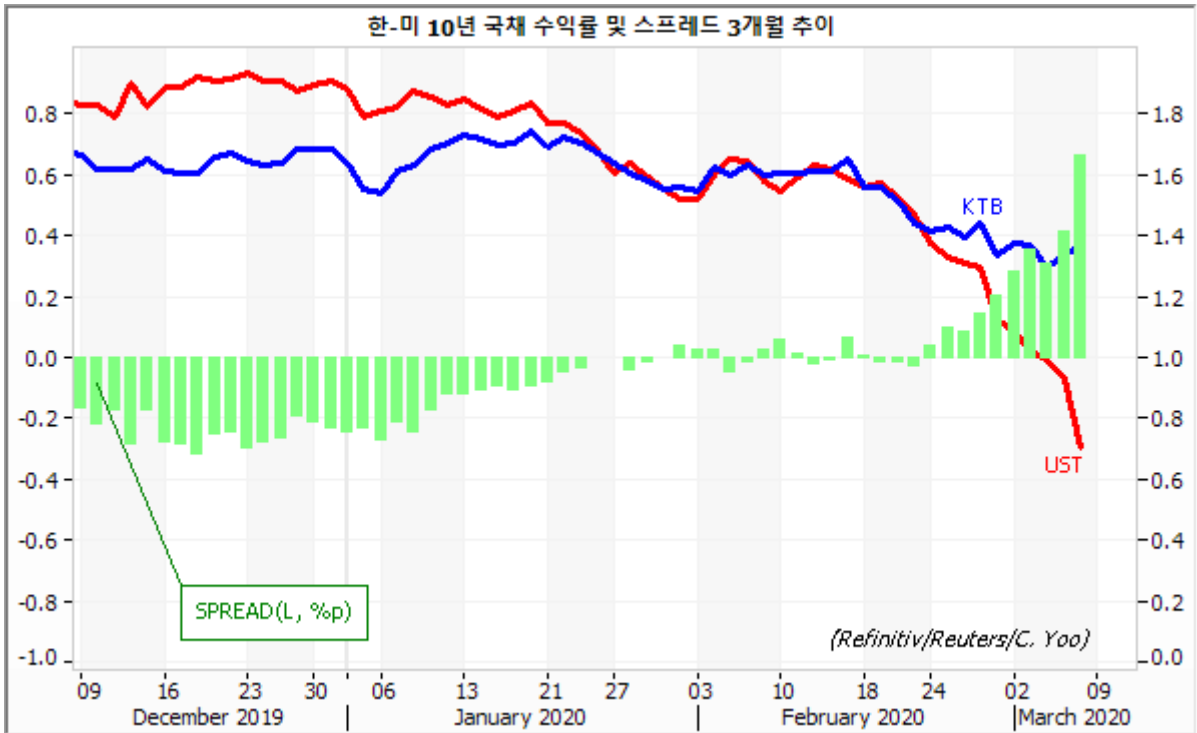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